

♫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

히9:11-14

지난주 깨끗한 양심 시리즈 5번,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야 과거를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스가랴서 3장,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하고 비난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귀를 책망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야비한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야 한다. 양심의 소리에 쫓겨 다니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자살하는 사람들

2019년 통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살률이 높다. 10만 명당 28명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하루 36명, 연 15,000명이 자살한다.

엣그제, 이재명씨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 자살
이유야 어쨌든 안타까운 일,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

좌파 정부에서는 유난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무현, 박원순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신문 기사,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비리사건에서 주요 인물 죽음만 남아> 문재인 정권에서 무언가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퇴임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위층 인사들, 어른들의 자살은 아이들에게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준다. 죄를 지으면 그냥 죽으면 된다.

아니다. 스스로 죽는 일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은 고귀한 것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세상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하신다(마16:26).

그러므로 오늘 < >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 마약과 알코올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다! 자살, 마약 및 알코올 중독 등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특히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청소년 아이들이 많다. “나는 내 삶을 망쳤습니다. 양심이 괴로워서 죽습니다.” 미국을 보면 그리스도인 아이들도 자살한다. 양심의 정죄를 견디지 못하고.

종종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이고 비극으로 이끌고 간다. 우리를 비참한 인간이라라고 속인다.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간다.

어떤 목사님이 수감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마약을 하십니까?” “목사님, 꼭 말씀드려야만 하나요? 제가 한 일들에 대해 저는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약으로 저를 중독시켜 저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과거는 우리가 고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 역시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과거는 몰라도 미래는 고칠 수 있다. 과거의 절망감, 수치, 죄악들만 보지 말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밝은 미래가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즉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히9:11-14를 읽어 보자. 히10:22를 보자.

9장 14절: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

10장 21-22절: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

어린양의 피의 속죄

9-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양의 피의 속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피는 죄들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한다(9:14).

왜 어린양의 피, 이집트 탈출 사건

거짓 신들을 섬기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림,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미리 대비하라고 하심

흠 없는 어린양을 취해 죽인 뒤 그것의 피를 문의 두 기둥과 상인방에 뿌리라고 하신다(출12:7).

하나님의 약속(12:12-13)

문에 그 피가 뿌려진 집에는 파멸시키는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다. 유월절 그 피의 의미: 그 집의 처음 난 것들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집에서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었으므로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날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집 사람들의 과거, 기질, 성향이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그 날에 오직 피만 보신다. 그 집 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맏아들 중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맏아들보다 더 악한 자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피가 있으면 그는 심판을 면하였고 그보다 더 착한 이집트 사람의 맏아들은 죽었다.

왜? 이것은 죄의 경중 문제가 아니라 해독제의 문제,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리스도의 피

구약 시대 수많은 성도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림

이것은 장차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한 번에 피를 흘리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
요1:29

그 피는 보배로운 피이다(벧전1:19).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런데 오늘의 중요 주제

예수님의 이 피는 우리의 죄들을 대속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진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만든다.

히9:13-14를 다시 보자.

그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위란 무엇인가? 매일 행해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종교적, 의식적 행위
왜 죽은 행위인가? 말 그대로 생명력이 없어서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므로

죽은 행위는 어떤 것인가?

사람들의 문제: 죽은 행위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자가 구원 방법, 자가 양심 세척 수단

1. 구약 시대 희생물들: 구약 시대 황소와 염소의 피, 죄들 제거 불가능(10:4), 덮어만 준다. 하나님은 그 피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 수많은 희생 예물 제사 행위는 죽은 행위, 지금도 마찬가지
2. 천주교의 미사: 이것은 천주교 사제가 축사를 하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이 된다는 것, 즉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땅으로 끌어다가 수도 없이 희생물로 드리는 제사(히6:6), 수천 번 수만 번 드러도 이것은 죽은 행위
3. 고해성사: 마르틴 루터, 너무 작은 죄까지 자기 신부에게 고백함, 나중에는 할 것이 없음, 그의 신부는 지쳐서 “다음에 올 때는 조금 큰 죄를 가지고 오게나”

그의 문제: 그날 모든 것을 다 고백해도 여전히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음. 그래서 다음날 또 다른 죄들이 생각남, 그러므로 고해 성사 소용이 없다, 죽은 행위이다. 묵주 기도 등

4. 침례/세례: 침례는 자가 구원 방법이나 자가 양심 치료제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받으면 죽은 행위, 교회 나간 지 1년 세례, 3년 집사 등
5. 선행도 죽은 행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돈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양심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답, 아니다!

아들이 매일 집에 오면 잔디를 깎는다. 그의 어머니의 말 “오늘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잔디를 깎니?”
선행은 내 힘으로 내 죄, 잘못을 덮어 보려는 행위, 다 죽은 행위

6. 고행과 자학: 불교, 힌두교, 천주교 등의 특징, 심지어 결혼도 안 한다. 십자가도 진다. 죽은 행위
이런 자가 구원, 자가 양심 정화 노력은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생각됨. 그러면 자살을 시도함

“나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길을 선택할래요.”

다른 사람들, “주님 오늘 제가 많은 성행을 하고 성경을 읽었으니 저를 받아 주세요.”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를 이대로 받아 주세요”

이런 모든 시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의 가장 큰 실수: 자기 삶을 보고 거기에 무슨 잘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것 보시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죽은 행위이다.

가장 좋은 소식: 단번 속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화평을 얻으려면 자가 구원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 속죄 희생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히10:11-14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한 번에 끝마치셨다.

1. 구약 시대, 수많은 제사장, 신약 시대 유일한 한 제사장
2. 수많은 희생, 단 하나의 희생
3. 구약시대 제사장들 서서 봉사함, 예수님 앉아 계심
4. 구약시대 예배하는 자들이 희생물을 가져오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물이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일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할 수 있다. 천국 백성

단번 속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10:19,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구약 시대 성막

성소: 제사장들, 매일, 분향 제단, 보여 주는 빵, 등잔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대제사장, 일 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백성의 죄들의 속죄를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즉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만 일 년에 단 하루 거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 히10:19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왔다면 내 앞에 오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너의 죄들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 휘장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 때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마27:5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히10:21-22

그러면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 시대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의 거의 모든 것에 피를 뿌렸다(9:21-22).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에 뿌려졌다. 우리의 양심에도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죄책감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22의 의미

conscience, consciousness 동일한 말

깨끗한 양심을 얻는 길

우울증, 침체, 무기력, 후회, 죄책감, 수치, 양심이 깨끗해지면 다 해결된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완벽하다.

첫 번째 유월절, 하나님은 오직 어린양의 피만 본다.

지금 하나님은 어린양 예수님의 피만 본다. 그 피가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람 동성에 문제, 비윤리적 문제, 좋지 않은 과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요?” 아니다 당신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양심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조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양심의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유명한 목사의 죽음,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옴

그의 친구가 그에게 말함. “여보게, 자네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학교 다닐 때 회장, 많은 책들을 썼고. 많은 사람들 구원시키고 목회도 잘했잖아”

그런데 그에게 화평이 오지 않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만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화평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우리의 더러운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자, 여기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된다.

양심이 투명해진다고 해서 죄의 결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서 남자 친구와 사귀다가 임신한 여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양심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임신, 아이 출생, 아이 양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양심이 깨끗해지면 이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정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 뒤의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의 화평, 절대로 극단적 선택 안 한다.

마귀가 정죄한다. 고소한다.

우리의 대답: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음을 확실히 믿는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100배, 천 배나 크다. 마귀야 물러가라!”

최종 문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다.

“목사님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가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는 보는 것,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고후5:7).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확신이다(히11:1).

믿음의 내용: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히9:14

히10:22

더러운 양심: 불신,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좌절감이 생긴다.

깨끗한 양심: 믿음, 화평, 용기, 소망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많으냐, 흉악하냐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신뢰하느냐가 유일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그 피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내가 인생을 다 망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고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저는 그 피만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정죄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